

전북자치도-시군, 제6회 부단체장회의 개최

산업재해 예방·노동안전 확립 등 도정 현안 협력 방안 집중 논의
지방살리기 자매결연·올림픽 유치·도정 현안 공조체계 점검 등

전북특별자치도는 28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5년 제6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도정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과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도와 14개 시군 부단체장이 화상으로 참여해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도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관련해 노동안전 확립과 지자체 예방 역량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산업재해 취약 사업장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사고가 잦은 지방공기업에는 안전투자 확대, 상시 예방조치 모니터링 체계 운영, 스마트·디지털 안전관리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사고를 줄여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와 부처·공공기관·기업 간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는 28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5년 제6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도정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과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도-시군 협업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고, 협업 내용을 종합 정리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영상 송출 확대 △제2회 전북포럼 참여 △전북사랑도민증 활성화를 위한 가입자 확대 및 가맹점 모집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법령불합합 및 필수조례 자치법규 신속 정비 △집중안전점검 후속조치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실적제고 등 다양한 협조 사항도 전달됐다.

다가오는 가을 축제·행사 시즌을 맞아 제8회 전주독서대전, 제13회 군산시간여행축제, NS푸드페스타 2025 in 익산, 제18회 정읍 구절초 꽃 축제, 제33회 흥부제, 제3회 김제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 제13회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 2025 진안홍삼축제, 제28회 무주밭짓불축제, 제19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2025 일심N치즈축제, 제20회 순창장류축제, 2025 부안 붉은노을축제 등 시군 대표 행사에 대한 홍보와 도민 참여 확대, 안전관리 철저도 당부됐다.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산업재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근절이 필요하다"며, "우리 도는 정부와 발맞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2025년 전북 우수브랜드쌀 5개 선정

군산시 '옥토진미' 대상 받아... 3년 연속 우수성 입증

전북특별자치도는 6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도내 시·군에서 추천한 브랜드쌀을 대상으로 '2025년 전북 우수브랜드쌀' 선정을 위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 군산시 '옥토진미'를 포함한 5개 브랜드쌀을 우수 브랜드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군산시 '옥토진미'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군산시 '못잊어 신동진'이 최우수상, 군산시 '큰들쌀', 김제시 '지평선쌀', 부안군 '신바람빛'이 각각 우수상에 선정됐다.

선정된 브랜드쌀들은 우수한 밥맛과 품질은 물론,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생산 기반, 철저한 시설관리와 품질 관리 체계 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상에 선정된 '옥토진미'는 최근 3년 연속 상위권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우수성을 입증해왔으며, '못잊어 신동진', '큰들쌀' 등도 여러 차례 수상 이력이 있는 전

북 대표 브랜드쌀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평가는 생산·품질·안전성은 물론 밥맛까지 전 과정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와 함께 외관 품질평가를 담당했으며, 한국식품연구원은 전문가 패널을 통한 밥맛 평가와 단백질 함량 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전북도와 농협, 농관원은 계약재배, 생산시설, 브랜드 품질관리 등을 직접 현장에서 평가하는 등 전문가 공동평가 방식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전북도는 선정된 5개 경영체를 대상으로 2026년 총 5억7,000만원 규모의 홍보·마케팅 비용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1억5,000만원, 최우수상은 1억2,000만원, 우수상은 각 1억원이 지원된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청 조직문화 개선 위해 '머리 맞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MZ공무원 혁신모임과 소통간담회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28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저연차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새만금 뉴웨이브'와 김의겸 청장이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취임한 김의겸 청장과 뉴웨이브 회원들이 함께 하는 첫 소통의 자리로, 변화하는 조직 구조에 맞춰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의겸 청장과 뉴웨이브 회원들은 △직장에서 듣기 싫은 말과 듣고 싶은 말 △서로 궁금한 점 묻고 답하기 등을 주제로 세 대 간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뉴웨이브 회원들이 제안한 '새만금청 조직문화 10대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앞으로 개선하고 실천해야 할 사항에 대해 솔직한 생각을 나눴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경위, 제2중앙 경찰학교 남원 유치 홍보

삼례시장 5일장 찾아... 교통안전 캠페인 동시 진행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연주)는 28일 원주 삼례시장(5일장) 일원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홍보 캠페인'과 '도민 교통안전 캠페인'을 동시에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일상생활 속 교통안전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연주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경찰위원회 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삼례시장 사거리 일대에서 주

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의 의미와 필요성을 설명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 유치가 단순한 교육기관 유치를 넘어 인구 구조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도민 공감과 참여를 적극 유도했다.

특히 캠페인 참가자들은 상인 및 방문객에게 야광안전팔찌, 부채,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8개 기관과 손잡고 '에너지 다드림 봉사단' 출범

8개 에너지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전문 인력·장비·재능기부 참여... 취약계층 생활 편의·안전성 향상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8개 에너지 기관·단체와 손잡고 민·관 협력 봉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도는 28일 도청에서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본부,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 한국전기기술협회 전북도회,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 한국에너지공단 전북본부, 열관리사협회 전북도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에너지 다드림 봉사단'을 출범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전문 기술인력과 점검 장비, 재능기부를 제공하고, 도는 자체비와 운영경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전기·가스·보일러 등 에너지 시설에 대한 통합 점검과 개선 활동을 추진해 취약계층 안



전북특별자치도는 28일 도청에서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에너지 다드림 봉사단'을 출범했다.

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봉사단은 '25년 전북특별자치도 민생편 특별 벤치마킹 과제'로 선정돼

추진되는 사업으로, 복잡해지는 에너지 사용환경 속에서 취약계층의 안전과 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말까지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약 200가구를 선정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그간 전북도는 '전력효율 향상사업', '에너지 홈닥터사업', '가스안전정기보급사업' 등 개별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종합적 지원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봉사단은 기존 사업을 통합·연계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에너지 복지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전북도는 본 협약식을 위해 모인 자리를 빌려 참여기관·단체들과 함께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대담을 갖고 향후 올림픽 유치활동을 위하여 뜻을 모았다.

/이만호 기자

도, '안전신고 포상금제' 우수 신고자 45명 포상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상반기 '안전신고 포상금제' 운영을 통해 신고실적 우수자 35명과 위험개선 우수 신고자 10명 등 총 45명을 선정해 포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안전신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증가했으며,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일반 안전신고 부문에서 도 단위 신고건수 2위, 인구당 신고건수 1위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최우수 사례는 장수군 도로 급경사지에서 법면 낙석 및 붕괴 위험을 발견해 나무 제거를 제안한 사례이다. 해당 신고를 바탕으로 폭우 및 강풍 시 발생할 수 있는 붕괴를 예방했다.

이 외에도 △호수·바닷가 난간 파손 신고 △교차로 반사경 미설치 신

고 △중앙분리대 파손 △인도 옆 안전펜스 기울어짐 등 생활밀착형 위험요소 신고가 다수 포함됐다.

전북도는 최종 선정된 신고실적 및 위험개선 신고자 45명에게 포상금(은누리상품권 10~50만원)을 지급하고, 하반기에도 45명을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장수천천사랑 제3회 전국 트로트 가요제

아름답고 청정지역인 장수군 천천면에서 '장수천천사랑 제3회 전국 트로트 가요제'가 열립니다.

농촌 문화예술 활성화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의미있는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일시: 8월 30일 오후 2시
2. 장소: 장수군 천천면 하늘내 체육관(위치: 천천면 사무소 앞)
3. 주최: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장수군지부
4. 주관: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개전주 천천면 향우회
5. 주요행사: 축하공연(식전 및 식후), 개회식, 노래공연, 행운권 추첨 등

**문의: (063)231-6669, 010-7304-5665
(063)285-6676, 010-4658-8198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3-9700

www.jjmaeil.com